

月殿和尚問僧，奚仲造車一百輛，粘却兩頭，去却軸，明甚變遷事，無門曰，若也直下明得，眼似流星，機如電，頰曰，機輪轉處，達者猶迷，四維上下，南北東西。

###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11

#### 해중의 수레

\*일말화상이 어느 스님에게 물었다. "해중(奚仲)이 일백쪽짜리 수레를 만들었는데, 바퀴 양쪽을 붙잡고 있는 굴대(軸)를 빼 버렸다. 이는 대체 무엇을 알리자는 것일까?"

\*나 해개가 말한다. "이 일이 단박에 선명해진다면, 눈은 유성처럼 나르고, 마음은 번개처럼 번쩍일 것이다."

\*송하가 가로되, 바퀴가 구르는 곳, 현명한 자 역시 해낸다. 사유(四維)와 상하, 남북이 가 하면 동서.

해중(奚仲)은 그 아득한 시절 하(夏)나라에서 처음 수레를 만든 기술자이다. 수레에 끈과 밧줄을 달아 신분의 차등과 위계를 설정했다 한다.

첫째의 해석에 의하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개들 '수레 일백쪽(造車一百輛)'을 '수레 일백대'로 번역하고 있다. 쪽(輻)은 수레를 세는 양사가 아니라 수레바퀴의 살을 말한다. 수레를 세는 단위로는 승(乘)이나 람(輦)이 어울린다. 쪽(輻)이란 바퀴(輪)에서 전해지는 하중을 바퀴통에 전



대(漢代)의 부조를 보면 바퀴살이 대개 20개 정도를 넘지 않았다.

또 해석상의 문제 하나가 있다. 이어지는 구절을 나는 '바퀴 양쪽을 붙잡고 있는 굴대를 빼 버렸다(粘却兩頭，去却軸)'고 번역했다. 그런데 다들 이 구절을 '양쪽 바퀴를 떼 버리고 굴대도 빼 버렸다'고

번역하고 있다. 염(粘)은 부처님의 염화미소의 그 염(粘)으로, '붙여다'는 뜻이다. 선어에서 염기(粘起), 염제(粘提), 염통(粘弄) 등이 모두 이 뜻의 가쪽들이다. 그런데 유독 염득(粘得)과 염각(粘却)만 '탈각시키다' '꺼내 치우다'라는 뜻으로 읽고 있다. 각(却)이 갖고 있는 '떨쳐냄'의 의미가 너무 강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본래의 뜻으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수레 바퀴에서 바퀴테는 남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월암의 상징과 비유가 보다 명징하고 적실하게 울린다. 무문의 송을 보라. '바퀴가 굴러가는 곳'이라 하지 않았다. 바퀴마저 빼 버리면 수레는 주저앉는다. '바퀴가 없는 수레' 또한 본문의 기를 잃을 수 있지만 그대서는 아무래도 긴장과 역설의 맛이 떨어진다.

굴대없는 수레바퀴가 사방(四方)과 사유(四維)를 굴러간다면 사유란 동서남북 사이의 네 방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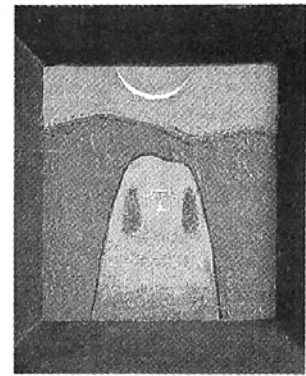
## 法數로 배우는 불교

<21>

### 사상제

스스로가 깨달아 이루셨든 부처님의 관심사는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였다. 이는 '여래는 고통과 그 소멸에 관하여만 실천다'고 한 (아누라) 경전을 보고서도 알 수 있다. 말했듯이 중생은 괴로운 존재이고 그 원인은 무명과 함께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마음속의 무명과 갈애를 제거하게 되면 온갖 고통은 사라지고 즐겁고 안전한 경지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고타멸제(苦滅聖諦)라고 한다. 여기서 '멸'이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는 뜻이다. 흔히 알고 있는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모두 이곳을 두고 한 말이다. 멸의 상태는 나고 죽음이 없고 허무하고 추악함이 없다. 이곳은 극락이며 정토며 진여의 세계로 모든 중생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가?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무명과 갈애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뱀에 물려 죽은 사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훌륭한 의사나 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내리듯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무명과 갈애를 없애는 방법을 베푸셨다. 이것을 고타멸제(苦滅道

聖諦)라고 하는데 (줄여서 멸성제) 여기서의 '도'는 멸에 이르는 길 즉, 방법, 수단을 가리킨다. 마치 누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통하든지 철길을 통하든지 국도를 통하든지 해야 하는 것처럼 중생이 고통을 소멸시키려면 그에 이르는 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물론 이 도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적



◇송수님화집 '자연과 명상' 중에서

### 멸 온갖 고통사라진 열반경지도 滅에 이르는 8가지 바른길

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길로 여덟가지 올바른 길인 팔정도(八正道)가 제시된다. 팔정도는 고·집·멸·도 사상제중의 일부이므로 함께 설명하지만 실은 불교를 상징하고 대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팔정도는 한마디로 우리 불자들의 생활 신조며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의 여덟 덕목으로 구성된다.

정지견·정사·정어·정업·정명·정정진·정법·정정이 그것이다.

첫째 정지견(正知見)은 바른 견해다. 중생들이 지닌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올바른 소견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의 바른 소견이란 우선 부처

님의 설법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확립된 인생과 우주관을 말한다. 예컨대 무상·무아·고와 같은 삼법인의 법문에 입각하여 정립된 견해를 가리킨다.

둘째 정사(正思)는 올바른 의지이다. 이는 앞의 정견에 대해서 한층 깨달아 보겠다고 일으킨 의지심에 해당한다. 마치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신도 한번 서울에 가보겠다고 의지를 일으킨 것과 같다.

셋째 정어(正語)는 올바른 언사 용이다. 정견에 입각하여 정사를 일으킨 사람은 바른 말을 해야 한다. 거짓되고 악하고 꾸밈고 이간질하는

말대신 진실되고 착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정업(正業)은 올바른 행위이다. 수행자는 말만 진실해서는 안된다. 몸으로도 착한 업을 지어야 하는데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익된 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명(正命)은 올바른 생활을 가리킨다.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의지 그리고 올바른 말과 행위로써 생활을 영위해 간다. 그야말로 신·구·의 세가지 행위가 잘 갖추어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정진(正進)은 물러나지 않는 올바른 노력이다. 정정진은 앞의 다섯가지 올바른 바퀴와 뒤의 두가지 올바른 축을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가리킨다.

일곱째 정법(正法)은 올바르게 관찰하는 마음이다. 밖을 향해 일으키는 일체의 분별과 번뇌를 항상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기서의 '법'은 '주의 해서 본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덟째 정정(正定)은 올바른 집중이다. 정정은 앞의 정법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닦아서 몰입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정은 나중에 다시 정견을 증득하게 하여 지혜를 일으키고 무명과 갈애가 소멸된 멸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네 진리 여덟 길은 중생이 결박을 풀고 멸을 얻는 최상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 '축' 없는 수레 인과 없는 경계

"천길 낭떠러지 끝서 새 세상 보려면..."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바퀴통 사이를 굴대(軸)가 꿰고 있어 수레가 비로소 굴러갈 수 있다. 옛날의 우마차나 용인민속촌의 대장간 옆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이 바퀴의 구조를 대강 알 것이다. 요컨대 '수레 일백쪽'은 '일백개의 살을 끼워넣은 바퀴'를 말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병풍을 셀 때 미끄러진 연상과, 보통 때와는 달리 형용어가 뒤에서 꾸미는 문장구조 탓인 듯하다.

어찌 나처럼 해석한 사람이 없을까 이모저모 뒤져보았더니 동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인터넷에는 불교관련 정보가 지극히 풍부하다. '문 없는 문(gateless gate)'으로 검색하니 수십개의 사이트가 떴다. 그 가운데 한 미국인이 일본관에 의지해 영역해 놓은 무문관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다. "Keichu, the first wheel-maker of China, made two wheels of fifty spokes each." 이 사람은 일백쪽의 살을 두 바퀴에 나눠 주어 각각 오십쪽씩이라고 해석했다. 그것도 그럴 듯하다고 무릎을 쳤다. 기실 백개의 살은 바퀴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노자(老子)>라는 책을 기억할 것이다. 이 책은 바퀴통 중간의 '비어있음'을 통해 바퀴가 제 구실을 하듯 인간 역시 정신의 비어있음을 통해 무위(無爲)의 자연스런 공용(功用)을 구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거기서든 바퀴살의 수가 30개이다. 한

가리킨다. 여기에다 동서남북의 사방을 합하면 지상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담긴다. 이 수레는 어디고 아니 가는데가 없다. 위 아래로 간다나? 아니 무슨 수레가 날개도 없이 하늘 위와 땅 밑을 구름처럼 날아다니는나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해개는 그 의혹에 대해 "하늘을 못 나르다면 땅으로도 갈 수 없다"고 주장자로 뒤뚱수를 칠지 모른다.

수레의 굴대는 인과(因果)의 고리를 말한다. 우리는 아득한 시절부터 생래적으로 삼어진 무명(無明)의 바위에 의해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좋고 싫음을 나누며, 그리하여 생사의 윤회를 세세생생 거듭하고 있다. 굴대는 세속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이지만 저 너머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떨쳐야 할 집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놓으면 꼭 죽을 것만 같다. 앞서간 스승들은 말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의 비밀처럼,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한발을 쉬우 내다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곳을 해개는 "눈은 유성처럼 나르고, 마음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자리라고 일러준다. 선은 속도이다. 머뭇거리면(躊躇) 다시 생사의 쳄바퀴 속으로 떨어진다. 지구 자전보다 더 빨리 돌아야, 최치한 군더더기, 분별의 짐작을 빨래 털 듯 떨쳐낼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불교와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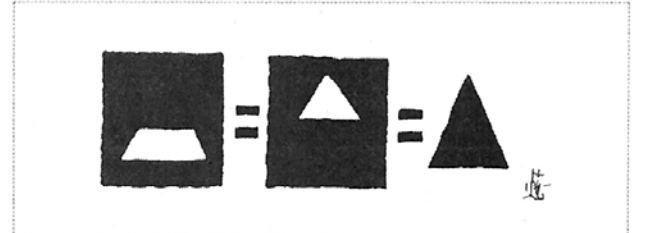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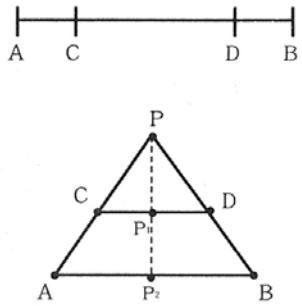
14

#### 불교와 무한 ③

김 용 운

하나의 무한집합 속에 자신과 같은 정도의 무한집합이 정연하게 전체와 부분 서로의 질서를 깨뜨림 없이 존재한다. 간단한 1, 2, 3, ...으로 구성되는 수 중에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2, 4, 6, ... 2n 또는 1, 3, 5, ... 2n-1과 같은 짝수, 홀수 전체의 집합이 있다. 이들은 부분으로써 전체와 같은 정도로 많은 무한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그 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전체와 같아질 수 있다. 이 엄청난 무한의 이법(理法)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세존의 입안의 이(齒)사이로부터 수없이 많은 빛이 방사되고十方(十方)의 세계를 비치고 있다고 묘사했다. 그 빛을 받은 보살은 연화장(蓮華藏)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연화장 세계에는 무한의 세계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각각 부처가 있다. 또 하나의 연화장 세계를 중심으로 무한의 연화장 세계가 각자의 부처를 중심으로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19



자연수 전체(1, 2, 3, ... k ...)와 짝수 전체(2, 4, 6, ... 2k ...)가 같은 정도로 많은 요소를 갖는다는 것은 1~2

'전체와 그 일부는 같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등한 세계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며 엄밀한 수학적 논리에도 검증된 것이다. 그런인가! 이보다 큰 집합이 존재하고, 이어서 얼마든지 큰 무한집합이 한없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엄연한 수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모든 불토(佛土)를 부처의 일묘공(一毛孔) 속에 넣어도 남음이 있다. 부처의 자비란 허공과 같이 광대하다" <화엄경>

무한세계의 무한한 확장을 말한 것이다. 무한세계에 사유의 첫발을 디딜 때, 열릿 모순 덩어리로 보이는 그 질서에 아연실색한다. 무한세계는 부분이 전체와 같은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세계이며, 또 '여하한 무한도 최대의 무한이 될 수 없다'는 인간의 현실 감각을 벗어난 세계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서로다른 무한집합 일대일 대응 연화장세계 전체-부분 질서유지

로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수학에서는 가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선분 AB의 일부분에 불과한 선분 CD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는 전체 AB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와 같다고 한다. 수학은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위(그림)의 직선 선분 AB에서 선분 CD를 들어 올려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만든다. 점 P에서 CD상의 한 점(P)을 지나 AB와 만나는 점을 P1로 한다. CD위의 점과 AB위의 점이 완전히 일대 일로 대응하는 것이다.

2~4  
3~6  
:  
k~2k

라는 식으로 완전히 일대 일 대응하기 때문이다.

AB의 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CD 위의 한 점은 완전히 1:1 대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과각형을 만든다. 점 P에서 CD상의 한 점(P)을 지나 AB와 만나는 점을 P1로 한다. CD위의 점과 AB위의 점이 완전히 일대 일로 대응하는 것이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쉬습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 ·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 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기획 영상물.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생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이다  
(02)3272-0781~5/706-3502~5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 1 서용 린스님 (고불충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생활의 소리
- 2 서암 린스님 (전 조계종 중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 3 월미 린스님 (조계종 중정) 달린트 고독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 4 석주 린스님 (철보시 조실) 동화작가 정세봉 불자가 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 5 원삼 린스님 (불국사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린스님의 삶을 위해
- 6 성수 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송환우교수의 대담으로 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의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 7 고승 린스님 (미계시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달린트 영남대 불자에게 설교
- 8 비룡 린스님 (월정시 조실) 관음보살상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진 소장과 대담
- 9 원담 린스님 (덕승충림 방장) 판화가 황남채 불자가 수세의 발달이 닿지 않는 린스님의 산증거지를 전함
- 10 일타 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회상) 현대인의 가슴에 속속한 불비같은 청량함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일기준 대표가 전함

\* 위 차례는 방출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 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